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강주원	소속(학부/과)	신소재공학부
파견 학기	2023년 가을학기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Vilnius Gediminas Technical University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코로나 시대에 대학 생활을 대부분 보내서 교환학생에 대해 큰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하게 된 취업 멘토링에서 멘토분이 타학교 학생이셨고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공대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금오공대 학생분과 만나 생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환학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찾아보니 지원 당시 본교에서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공대 파견을 모집하고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빌니우스 공대에 관심이 갔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신소재공학부는 프랑스나 독일에는 있었지만, 리투아니아에는 없어서 수강과목에 대해 걱정이 되었지만 파견교의 기계공학과에 전공과목인 재료과학이 열려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딱 맞는 과가 없더라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물가가 저렴하고 파견교에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준비: 본교에서 교환학생에 선발된 후 교환학생과 관련된 서류준비는 본교의 국제교류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파견교에서 날아오는 메일을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견교에서 어느 학과에 소속할지 코디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파견교의 학과로부터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수학계획서(영문), 파견교에서 들을 과목 리스트를 업로드하고 지원 학과의 승인을 받으면 5월 중으로 Letter of Acceptan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교에 입학할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그 후 6월쯤 기숙사 신청에 관해 날아오면 그때 지원하시면 되고 빌니우스 공대 전용 기숙사는 Sauletekio 39A 하나입니다.

-비자 발급: 준비물 아래 다섯 가지

1. 30000유로 이상 special expanca가 포함된 **건강보험서**(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며, 영문으로 발급요청),
2. **왕복 항공권**(영문으로 된 e-ticket),
3. **잔고증명서**(얼마 이상 기준 확인하셔야 함, 프린트는 영문이며 단위는 Euro, 비자발급 현장에서 확인하시는데 이때 저의 경우 카카오뱅크 실시간 잔액 보여드렸고, 한글, 단위 won이어도 통과됨. 잔고증명서 프린트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비자 받으러 간 날 현장에서 계좌와 남은 금액 눈으로 확인하심)
4. **여권사본** (현장에서는 실물 여권 챙겨가야 함)
5. **Letter of Acceptance** 파견교 입학허가서

-**비자발급**은 2023년 7월부터 기존 epm에서 신청하던 것이 통합되어 **MIGRIS**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신청방식을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기다린 후 리투아니아에 도착한 후 방문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유럽의 경우 9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여권 무비자 체류 가능하기 때문) MIGRIS에서 비자발급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제출하면 현장에서 따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방식이 바뀌지 얼마 안 되어 혹시나 해서 프린트를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공대 기숙사나 올드타운 플랫폼에 거주하신다면 **Vilnius Vytenio st.18**이 아마 가장 가까운 비자발급 기관입니다. 방문 시간은 최대한 앞쪽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대기가 길거든요. 리투아니아 도착 후 신청하셔도 자리는 일주일 내로 많기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비자 만들 때 사진을 찍기에 단정하게 가시면 좋습니다. 비자국 방문 후 약 일주일 뒤에 메일로 비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방문 날짜를 잡으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귀국 날짜를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최대기간으로 넉넉하게 설정해서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공권 구입**: 그리고 한국에서 키세스 항공권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학생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마스터 카드 검용 가능) 국제학생증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출발 전 발급도 가능하고 파견 후 파견교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이 발생하지만 할인되는 부분이 많아 국제학생증은 꼭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8월 말 출국 예정이었고 약 4개월 전 왕복으로 키세스 항공을 이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키세스항공 이용 시 위탁 수화물 23kg 2개 무료, 캐빈 백 8kg 1개, 손가방 1개(백팩, 무게보다 발 밑에 들어가는 사이즈인지 확인)가 무료였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귀국편은 최대 2번까지 바꿀 수 있으며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꾸면 7만 원 정도 수수료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비자발급을 위해 꼭 왕복 티켓이 필요하니 왕복으로 구매하시고, 리테이크 기간에 재시험이 걱정되시면 나중에 귀국 날짜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은 LOT를 이용했고, 인천-헝가리-폴란드-빌니우스 항공편이었는데 헝가리에서 스탑오버 후 결항을 겪어서(결항이나 지연 시 유럽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후 항공편이 바뀌었고 귀국편도 2시간 지연을 겪었습니다. 대신 기내식이 맛있고, 신라면컵을 줍니다. LOT는 지연과 결항이 잦으니 일정을 빠듯하게 잡기보단 느긋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챙길 것**: 리투아니아는 한인 마트가 2개 정도이고 규모도 작고 많이 비쌉니다. (라면 1봉지 2유로) 최대한 **한식을 많이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면, 카레 분말, 코인육수, 참기름, 간장, 쌈장, 된장, 고추장, 블록국 등등) 압력밥솥을 들고 오는 한국인들도 꽤 있었어요. 쌀은 한국쌀은 없고 스시쌀을 팝니다. 겨울 학기는 다들 **포켓 전기장판 필수**로 챙깁니다. **수건**은 비싸니 최대한 챙기시고, 고무장갑이나 웬만한 생필품은 이케아에도 다 팝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행 갈 지역의 **소켓, 미니드라이기, 멀티탭** 긴선, 리투아니아엔 비닐봉지보다 지퍼백을 팔아서 **비닐팩** 챙기기, 접이식 **미니우산**(겨울엔 내내 눈,비입니다), 실내화 슬리퍼, **usb케이블로 된 충전기**(외국 여행 시 호스텔이나 비행기, 플릭스 버스에선 usb로 충전 가능), **유선 이어폰**(비행기에서 사용, 바티칸 투어 등에 필수), **개인 수저통**(여행 시 젓가락 없어요), **샤워기 필터**(유럽엔 석회가 많아서 한 달 쓰면 누렁습니다), **빨래망**, **유심 빼는 핀**, **자물쇠**(여행 시 도미토리의 경우 꼭 잠가야 함), **상비약**(서유럽은 약이 한국 3배로 비쌌) 등

-**유심**: 빌니우스공대는 오티가 일주일이고 오티 첫날에 물병, 유심, 티셔츠, 에코백 등 필요한 웰컴 선물을 주십니다. 이때 주시는 **Mano Ezys**라는 유심을 장착하시면 되는데 유심 받기 전까지는 이키, 맥시마, 드로가스, 트래피(교통) 할인권을 만들지 못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마트에서 한 달권 유심이나 기간제 유심을 사서 사용하시고 학교에서 주는 한 학기용 유심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심을 받기 전에는 저의 경우에는 esim을 사용했고, "티플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와이파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무조건 현지 번호가 필요하기에(교통 할인, 레볼루트(유럽계좌), 등등)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은 번호유지만 시키고 로밍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전까지 esim으로 버티다 현지 유심을 사용하면 됩니다. 리투아니아는 통신비도 매

우 저렴합니다. (한 달 20기가 12.5유로 정도)

-**교통:** 처음에 **Trafi**라는 어플을 발견하기 전에는 리투아니아 버스(트롤리)를 타고 기사님께 1유로를 내고 직접 표를 구매 후 표에 적힌 쿼알을 버스 내 스캔하여 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student라고 하면 0.5유로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저렴한 방법은 Trafi 어플을 깔고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저렴합니다. 학생으로 선택하시면 80%할인이 되어서 30일권 5.8유로, 3달권 16.2유로에 구입하여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타 국가에 비해 **매우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트롤리는 버스에 긴 귀가 달려서 레일을 따라가는 버스인데 가끔 트롤리 한 대가 고장나면 모든 트롤리 운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이런일은 잘 없긴해요) 빌니우스 수도에는 교통이 잘되어 있어 버스는 광역시만큼 배차도 짧고 노선도 잘되어 있고 오전 5시부터 막차는 11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트래피 정기권을 사시면 탑승시 검사는 없지만, 가끔 사람이 많은 시간에 노란 조끼를 입으신 검표원이 탑승을 하셔서 표를 보시고(학생의 경우 학생증 제시) 무임승차의 경우 30배를 내게 됩니다. 택시의 경우 **Bolt**를 주로 탑니다. (카카오택시와 비슷) 심야에도 안전하며 요금은 한국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볼트뿐만 아니라 **우버**나 다른 어플도 사용가능합니다.

-**치안, 언어:** 유럽에 오기 전에는 소매치기나 야간의 치안에 걱정했는데 리투아니아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사람이 지나가면 모든 차들이 정지하는 등) 빌니우스의 경우 늦은 새벽까지 펍에서 놀기에 길거리 사람들도 꽤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시민분들도 잘 웃지는 않지만 친절하십니다. 마트 직원이나 어른들은 영어를 잘 못 하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고,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어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제가 파견 간 2학기는 8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지냈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따듯했고(한국보다 여름이 긴 것 같아요) 10월 중말부터 급격히 추워져서 패딩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빨리지고(3시 반부터 어두워지고 5시면 깜깜해요) 늦게 해가 뜹니다. 그래서 **Summer time**이 존재합니다. 10월 말에 여행을 다녀왔더니 11월에는 시차가 1시간 당겨져 있었습니다. (10월 31일부터 바뀌고 봄에 다시 시차가 또 바뀐다고 해요) 한국과 시차가 6시간이었는데 겨울에는 7시간이 됩니다. 써머타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해가 빨리 저서 노동 시간을 한 시간 당기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마트에서 주류 구입은 평일 8시까지이고 주말은 6시입니다. 리투아니아에는 한국 같은 편의점이 없어서 필요한 물품은 마트가 닫기 전에 미리 구매하셔야 합니다. 첫날 도착날에 밤늦게 도착하여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수돗물을 마셔도 되지만 찹찹하시면 사드시거나 물 필터를 사용해서 먹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강신청:** 빌니우스공대의 경우 학기가 9월에 시작하며 9월 초 일주일은 오티기간으로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정보를 듣고 오후에는 근교 투어(트라카이 성, 빌니우스 시내 둘러보기)를 조별로 진행하고, 저녁에는 항상 펍에서 파티를 합니다. 이때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귄 기회이니 최대한 참석하면 좋습니다. 오티기간 후 9월 한 달 내내 수강 정정기간이며 긴 기간이어서 자유롭게 수업을 들어보고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은 파견 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업 시간을 모르고 신청을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티날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시간표가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이후에 정정하기에 초기 한국에서 신청하실 때는 듣고 싶은 과목 몇 개 정도만 가볍게 넣고 바꿀 생각을 하고 오시는게 좋습니다. 빌니우스 공대는 시간표가 특이한데 1Week와 2Week 시간표가 다릅니다. 홀수 주와 짝수 주 시간표가 다르기에 수업시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업장소:** 빌니우스 대학과 빌니우스 공대는 다른 학교이며, 종종 블로그 후기에서 빌니우스 대학이라 하며 정말 종합대를 얘기하는 것이기에 빌니우스 테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학교가 붙어있고, 기숙사도 같은 지역을 사용해서 같은 학교 같지만 다릅니다. 빌니우스 공대는 전자, 기계, 자연계, 경제, 토목, 신재생 등 여러 수업이 있고 **찐 공대 수업은** 기숙사 기준으로 오른쪽(이키쪽)으로 20분 걸어가시면 테크관이 P1, P2건물이 있고, 보통의 교양이나 **기초학부 과목 등은 본관에서** 하기에 기숙사 기준 왼편으로 10분 걸어가시면 됩니다. 기숙사 사시면 수업을 들으러 **버스 탈 일은 없습니다.** 본관과 학교 메인은 왼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점:** 리투아니아는 **1교시가 8시30분에 시작**하고, 석사의 경우 수업이 밤10시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교시 수업시간은 50분이 아니라 **1시간 40분**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론과 실험이 별개이지만 유럽은 **한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일반화학의 경우 이론과 실험 병행, 재료과학도 이론 실험 병행이며 실험 교수님 따로 계시고 시험도 이론, 실험 따로 치지만 한 과목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한국보다 **뽀세**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반화학1을 신청해서 이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험도 병행한다고 하여 실험복을 비싸고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실험복이나 계산기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리테이크 기간이 존재하며(중간, 기말 모두) 시험은 1-10점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5점이 넘어야 P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니 **뽀세**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5를 넘어도 더 높은 점수를 원하시면 리테이크 기간에 재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기말시험은 (종강 1월말~2월6일 전) 1월 초 중순으로 당겨칠 수 있습니다. 빌니우스 공대는 2학기의 경우 500명 이상의 교환학생들이 파견을 오는 학교여서 모든 교수님들이 교환학생들에게 편의를 잘 봐주십니다. 한국은 경쟁을 위한 공부라면 여기서는 진정한 학습을 위한 공부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ECTS의 경우 한국으로 4학점, 4ECTS의 경우 2학점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국장 관련) 최소 학점이 있다면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저는 리투아니아어1(4ECTS), 신재생에너지(6ECTS), 재료과학(4ECTS), 일반화학(6ECTS)를 수강하였고,

리투아니아어(victorija 교수님)는 현지에서 쓰는 기본적인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지만, 라틴어 베이스다 보니 다른 유럽 친구들은 너무 쉽게 배우지만 저에겐 어려워 중간에 드롭하였습니다. (드롭 시 F표기라 성적에 반영 안 됨) 제가 다닐 시 교환학생을 위한 리투아니아어 교수님이 두 분 계셨는데 제가 들은 교수님은 pdf도 없고 답지도 없는 성인용 리투아니아어 책으로 수업을 나가셔서 힘들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무조건 다른 학생들과 1:1 롤플레이를 시키시는데 이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교수님을 들은 친구는 단어 암기 위주이며, 중간고사를 10점 받으면 기말을 안쳐도 된다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시니 잘 알아보고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재료과학2(올렉산드르 교수님)의 경우는 이론과 실험 둘 다 있었지만 실험 시간에 따라 학점이 4학점이나 6학점이나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부 기준으로 재료과학 이론은 재료과학, 실험은 현미

경특성평가(미세조직 관찰), 기계적특성평가(켄칭) 느낌이었습니다. 시험은 재료과학 중간, 기말 이론을 쳤고, 실험은 기말만 쳤습니다. 중간에 실험은 개인 보고서 1회, 팀 보고서(함께 작성) 1회였고 시험 난이도는 한국에서 재료과학을 들었다면 아주 쉽게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교수님도 농담을 자주 하시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금속의 특성을 보기 위해 각 나라별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의 동전을 꺼내 성분, 함량 등을 측정하는 등의 참여 위주의 수업이 많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일반화학1(ingrida 교수님)의 경우 정말 뻘컘고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던 수업입니다. 화학을 좋아서 큰 고민 없이 신청하였는데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학생 개별로 질문을 많이 시키고 판서로 화학식을 쓰라고 하시는 등 참여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매주 화학 실험이 진행되며 시간 내 끝내지 못하면 남아서 끝내거나 다른 날 다시 와야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다음주에 A1사이즈 모눈 노트에 적어와야 하며, 매주 홈워크를 함께 제출 해야했습니다. 실험보고서는 총 9회이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놓친다면 리테이크 기간이나 교수님과 협의하여 다른 날 다시 실험하러 오면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 디펜스? 테스트라며 시험이 잦아서 매주 공부를 해야했습니다. 시험도 타 과목에 비해 많았는데 중간고사를 총 3번치며(각각 5점 이상 넘어야 통과) 기말고사는 전 범위 1번입니다. 대신 이 과목은 실험에 관해서는 따로 시험을 치지 않았고 이론 시험에 병행하여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보고서 점수는 후하게 주시는 편이지만 시험이 중간고사 3번과 기말고사부터 난이도가 높기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팀으로는 리테이크를 치신다면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에 시험이 어렵다 싶으시면 문제를 잘 외워?나오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빌루네 교수님) 학점을 채우기 위해 신청했는데 6ECTS 치고 가장 꿀 과목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고사는 팀 발표로 대체였고(태양열, 태양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에서 한 주제 선택하여 팀 4~6명에서 1시간 영어로 발표) 기말고사 1번이 끝이었습니다. 격주로 실험실 작업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 데이터 값을 엑셀로 채우면 끝입니다. 이 작업을 4번 정도 해서 기말고사 무렵에 하나의 보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다보니 학생들끼리 엑셀을 공유하기도 하며 다들 도와주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6ECTS의 경우 이론과 실험, 보고서로 뻘컘인데 이 수업은 4ECTS 과목보다 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점수도 후하게 주십니다. 팀 발표를 준비하며 약 한달 가량 외국인 친구들과 주말 마다 모여서 ppt를 준비하며 영어도 많이 늘었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가 팁: 금오공대에 금오톡톡이 있다면 빌뉴스 공대에는 OUTLOOK을 사용하여 교수님들과 소통합니다. 오피스365 빌뉴스공대로 로그인하시면 아웃룩을 쉽게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이메일을 받지 못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같이 수업하는 친구가 알려주어 알았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및 생활비:** 빌니우스공대의 경우 Sauletekio 39A 한 기숙사 뿐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기준으로 renovated 된 방의 경우 월세로 34만원(240유로), renovated가 되지 않은 방은 30만원(200유로)이지만 방을 배정받을 시에는 랜덤으로 주시고 웬만하면 다들 240유로 방을 배정받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300유로입니다. 후기를 보시면 현금으로 낸다고 많이 챙기라고 하시는데 모인(어플)송금도 가능하며 오히려 현금은 Pastas(리투어로 우체국)라는 곳에 가서 매달 기숙사에서 주는 송금정보를 들고 가서 내고 (1유로 정도의 수수료도 냅니다) 대신 기숙사에는 세탁기가 정말 비싼데 작은 세탁기 1번 돌리는데 3유로이며 건조기는 15분에 1유로입니다. 세탁을 하려면 꼭 코인이 필요하니 코인을 잘 모으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한국 자취비용보다 저렴한 편 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 룸메와 절약해서 생활하면 인당 20만원 안들었던 것 같습니다.(식비+교통비+통신비) 야채와 과일이 매우 저렴하고(양파 4개 400원, 굴 1kg 1유로 등) 고기도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사서 기숙사에서 요리를 하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비는 수도권 물가 정도이며 크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맛집 추천:** 맛집으로는 체인점인 Grill London(버거, 폭립 맛집), 웨이팅이 많아 가보진 못했던 아시아 술집인 Ryziu Jura, 기숙사 앞에는 Jammi 야미라는 케밥집이 있는데 샌드위치와 케밥이 맛있습니다. 펍으로는 다들 +++을 많이들 가고(맥주가 매우 저렴함) 플플플에 가시면 EPA맥주를 드셔보시길 추천해요. 한식은 구글맵에 Asia market이라 검색하시면 UAB와 NO.1 Asia Food Store가 뜨는데 후자는 Hall마켓에 위치하며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그 맞은편에 한국 반찬가게도 있어요. 비빔밥이 생각나면 그 반찬가게에 주로 갔었습니다. Hall 마켓 안에는 까눌레 맛집인 프레쥬(체인점)도 있으니 꼭 가서 사드셔보길 추천합니다.

- **쇼핑:** 대형 마트로는 IKEA, MAXIMA, OZAS, OUTLET PARK 등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마트는 반드시 할인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할인 금액이 크고 거의 모든 종류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할인카드 발급시 현지 +3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필요하며, 실물카드 발급은 1유로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특이한 점은 이키나 맥시마의 경우 규모에 따라 표시가 달라지는데 이키는 하트의 수로 규모를 평가하고 (하트 1개는 가장 작고, 최대 4개) 맥시마는 X표시가 달립니다.(이키랑 마찬가지로) 보통 식자재는 이키, 맥시마, 리들, 리미를 많이 가는데 이키는 빠게트 등 빵이 맛있고 맥시마는 고기의 종류가 많습니다. 리들에는 맛있는 과자가 많고(Liqure Crema Pistachio라는 피스타치오맛 깔루아? 버전이 있는데 사서 드셔보시길 추천해요), 리미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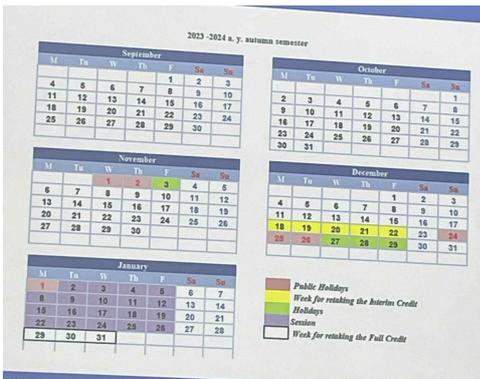
- 옷은 **H&M**에서 주로 사고, 구제 옷을 파는 휴마나라는 곳이 있는데 1~2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휴마나** 옷가게가 클수록 좋은 옷이 많고, 요일별로 옷이 많이 들어오고 빠지는 게 있어서 자주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요.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공대는 교환학생이 매년 500명 이상 들어와서 교환 관련 OT와 행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ESN이라는 학생 단체가 있어서 거의 매주 펍에서 파티? 행사를 합니다. (나라별 음식이나 문화 공유, 가면 무도회, 가라오케 파티, 컨셉 파티, 비어핑퐁, 걸즈 파티 등등) 또한, 리투아니아에 도착 전에 멘토를 신청하면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멘토멘티가 배정되고 친절한 멘토가 공항 픽업을 오거나 오티기간에 멘토데이가 하루 있는데 그 날 함께 모여서 놀입니다. 저의 경우 고카트를 타러가와 점심을 함께 먹고 헤어졌습니다. 멘토데이날 생활 꿀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랜덤이라 멘토 바이 멘토 같습니다. ESN단체에서는 또 라플란드 오로라 트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쯤 신청을 하며 한화로 80만원 정도 내면 (저의 경우 12월 2일~10일) 9박 10일 오로라 트립을 갈 수 있습니다. 학생 단체에서 움직이며 타 학교 학생(유럽연합)들도 함께 신청해서 갈 수 있기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로라 실제로 많이 봤어요)

또한 제가 파견간 23년 가을학기에는 아시아 사람이 3명(한국인2, 대만1)이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유럽에서 오기에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순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빌뉴스대학에는 한국인이 꽤 있지만 빌뉴스 공대에는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고, 같은 나라끼리 뭉쳐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교환학생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점을 소개하자면 보통 한국은 3월이 한 해의 첫 학기 시작이라면 빌니우스 공대는 2학기인 9월이 첫 학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월중순~2월초가 첫 시작입니다. 9월에는 첫 주는 오티주라 놀기 바쁘며, 9월 한달 내내 수강정정기간이라 마음껏 듣고 원하는 과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크게 2번의 긴 휴가가 주어집니다. (9월 초에 전체 오티와 과별로 진행하는 오티에서 아마 설명해 주실겁니다) 10월말, 12월말 한 10일 정도 각 휴가가 주어지기에 시간표를 화수목으로 몰아 짜서 유럽을 돌아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은 23학년도 가을학기 수업 일정표입니다.)

빨간색이 국가 공휴일, 노란색은 과(기계공학)에서 정한 공휴일인데 아마 모든 과가 비슷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소재이지만 신소재가 없어서 기계공학에 소속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공이 1개라도 그 수업에 속하면 그 학과에 소속 가능하며 어느 소속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듯 합니다. 대신 소속과에 따라 학사 일정을 받거나 수강정정을 본인과 코디네이터분에게 요청하여 받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공휴일은 모든 유럽 학생들이 본가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에 여행을 계획하시면 덜 쓸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각 나라를 대표하여 발표를 하는 인터네셔널 데이가 있습니다. 인터네셔널 데이에 참석하면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에 의해 다른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고 나라별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한국에 있을 때 그 행사를 위해 자신의 학교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 신청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신사동에 가서 한복을 입은 곰인형 키링과 한복에 다는 약세사리를 작게 준비해 갔고, 함께 파견 간 친구는 약과와 한국의 문양이 담긴 책갈피를 준비

해 갔습니다. 행사 당일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좋아해 주어서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국기가 크게 걸려서 한국을 대표하며 학교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 꼭 참여하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빌뉴스에는 MRU대학에서 진행하는 **세종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한글과 음식, 문화를 배우는 곳이라 리투아니아에서 드문 한국인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종학당에서 진행하는 떡볶이, 치킨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현지 사람들을 만나보며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오티날 많은 동아리를 소개해주는데 거의 매주 **왓츠앱**에서 학생들끼리 또는 **ESN 단체**에서 파티가 열리기에 굳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문화를 접해 볼 수 있어서 동아리는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제가 파견 갔을 당시 리투아니아에는 한국인이 매우 적은 것과 파견 온 유럽 친구들은 각 나라별로 뭉치는 특성이 있어서 더 외롭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티 주간이나 밤에 놀러 +++같은 펍에 가 보면 테이블마다 같은 나라 끼리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가 장난으로 프랑스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등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면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오히려 본인들도 뭉쳐 다니는 것을 알아서 먼저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던 주눅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친근하게 다가가면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와 가장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은 서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장보고 요리하며 문화를 경험한 추억은 아직도 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나라별로 또는 유럽 친구들이 생각하는 개방적인 마인드, 유럽타임, true or dare 게임 등 여러 **문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펍에 가서 밤 늦도록 외국인 친구와 수다를 떨어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교환학생은 **영어 실력 향상**이 크게 안된다고 하여 영어회화를 파견 성적에 맞출 정도로만 준비하고 따로 회화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초반에 적응을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약 한달이 지나면 적응이 되어 귀가 뚫리고 어느정도 소통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밤마다 영어 공부를 하며 회화 표현을 익히고 영어를 못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외국 친구와 어떻게든 대화해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이나 유튜브에서 배운 표현은 한계가 많고, 적용하지 않으면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나 요즘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등을 배우려고 했고 그런 점이 영어회화 실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 전이라면 약 한 달간 회화 연습을 빡세게 하시고, 파견 후라면 이론적인 학습보단 직접 만나 대화해보며 **교환학생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으로 한학기 동안 유럽에 파견을 갔지만 대학 4년 전체보다 깊은 농도였다고 생각이 들만큼 의미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면서 EU연합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 다들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인으로써 언어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유럽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역사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다른 나라의 배경 지식을 쌓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지원한 이유는 **전공과목**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가르치는지 궁금하였는데 한 학문에 대해 나라별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며 소통하며 영어 실력만 된다면 **해외 취업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에서 **여행**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리투아니아에서 몇 번의 긴 연휴 기간이 있어서 대략 14개국 26개 도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결합도 겪어보고 안 좋은 날씨를 겪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어서 **여행은 저에게 "비우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날씨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오기 전에는 저에겐 큰 산과 같았지만 한 번 온 이후로는 앞으로 어느 국가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없이 다녀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놀거리:** 우주피스 공화국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4월 1일 만우절에만 존재하는 우주피스 공화국에 여권을 들고가시면 여권 11페이지에 소품샵 직원분께서 웰컴!! 이라는 말과 함께 스탬프를 찍어주십니다. (4월 1일 이후에 가도 찍어주시긴 합니다. 장난이라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이후 유럽 여행과 귀국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다..^^) 또 한글로 헌법이 적힌 곳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여행:**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이다보니 fix버스를 이용해 쉽게 3개국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투아니아는 항구도시인 클라이페다가 너무 예뻐고(9월에 강추합니다) 근교인 카우나스 성도 볼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강과 넓은 공원이 있어서 예뻐습니다.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중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도 전망이 정말 예쁘고 많은 교환학생들이 다녀오기 때문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근교로 **폴란드**를 많이들 가시는데 야간버스로 가는것 보다 물가가 저렴하기에 낮에 가서서 박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에 자코파네라고 남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가 있는데 스위스 저렴이 버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긴 연휴 중 첫 번째 연휴에는 9박 10일로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뮌헨)과 스위스(베른, 취리히, 인터라켄)**를 다녀왔고,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17박 18일로 **독일(드레스덴(크리스마스 마켓이 예뻐)) 체코-프라하, 오스트리아-비엔나, 헝가리-부다페스트, 이탈리아-베니스, 로마, 피렌체, 피사, 프랑스-파리, 영국-런던)**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동유럽에서 가장 좋았고 서유럽은 이탈리아 로마가 좋았습니다. ESN에 가입하시면 라이언 에어를 총 4회(수화물 23kg 무료)를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예매 필수) 제 기억으로는 리투아니아-베를린 편도가 5만원 대, 리투아니아-런던 편도가 3만원 대로 날짜만 잘 맞추시면 정말 저렴하게 항공이 이용가능했습니다. 플릭스 버스를 이용해도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ESN에서 주최한 라플란드 트립으로 **노르웨이-북극해, 핀란드-바사토카, 헬싱키**를 돌아왔고, 폴란드는 워낙 근교라 세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쇼팽의 피아노 연주를 예약해서 들어보시고, 길거리마다 쇼팽 벤치(돌로 된)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벤치마다 다른 노래가 나오니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진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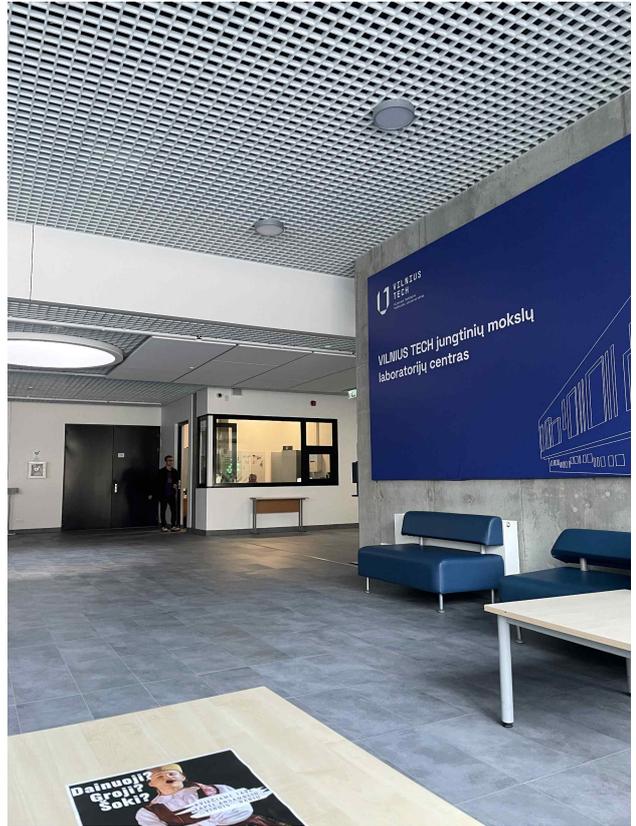
올드타운 구시가지(겨울)

- 빌니우스 공대 본관



본관 글라스 빌딩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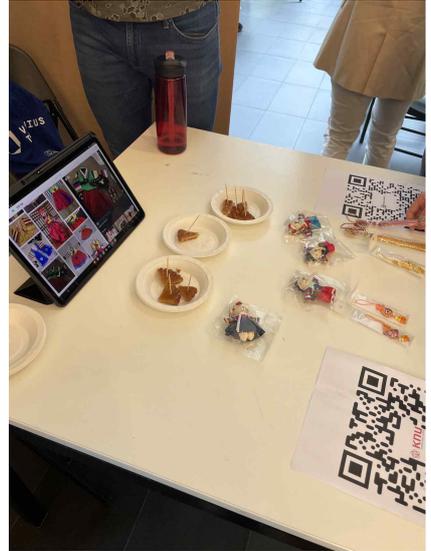
- 빌니우스 공대 (P1, P2 공대관)



- 슬레테크오 39A 기숙사



-인터네셔널 데이 행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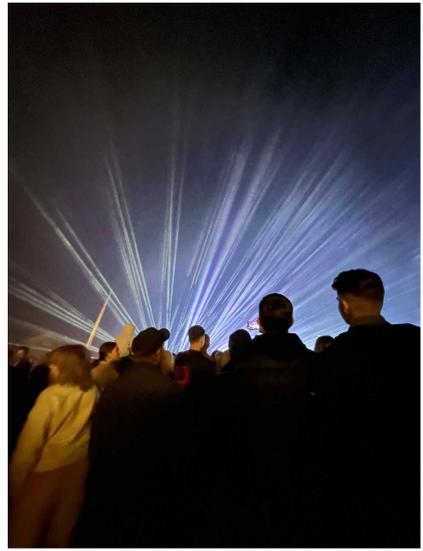


주방메이트들과 김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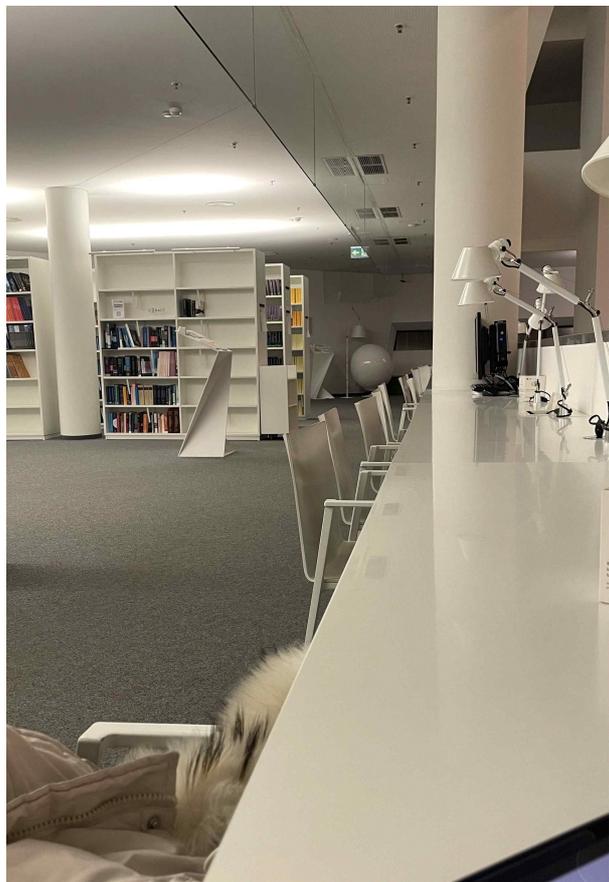
-세종학당 한식만들기 자원봉사 참여



-리투아니아 마켓, 전통 음식, 레이저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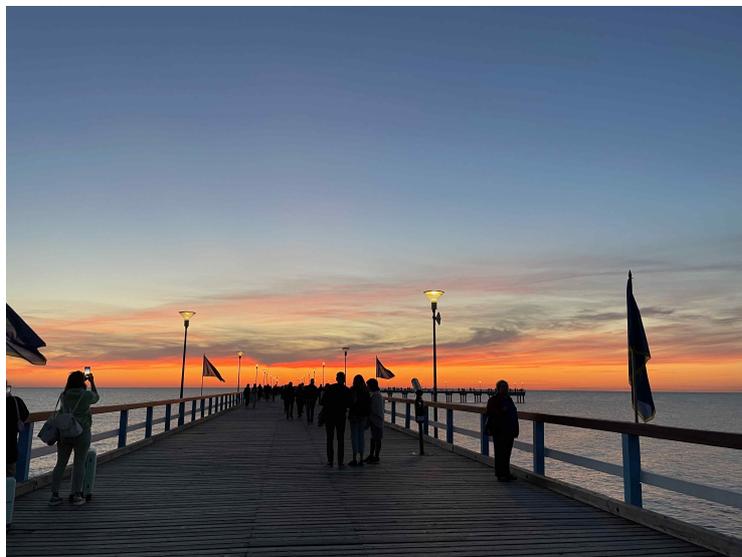


-옆 대학인 빌뉴스 대학 도서관 (자유롭게 이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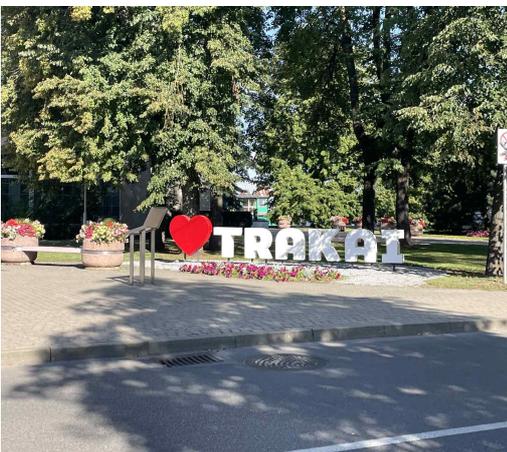
-리투아니아 소도시 여행

-> 리투아니아 유일한 항구 도시인 클라이페다의 팔랑가



팔랑가 근처에 크고 예쁜 가든이 있으니 꼭 둘러보세요(palangos miesto botanikos parkas)

-> 리투아니아 트라카이 성 (오티날 조별로 기차타고 갑니다)



-> ESN 단체에서 떠나는 9박 10일 라플란드 트립 (오로라 볼 수 있어요)



라플란드 트립과 관해서- 보통 바사토카와 사리셀카를 많이 가는데 저는 바사토카에 갔었고 추가로 신청한 액티비티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핀란드식 사우나 선택했습니다. 북극해에 빠지는 핀란드식 사우나 꼭 하시길 추천하고 핀란드식 사우나 액티비티는 하루 종일 차로 이동하기에 오로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숙소는 늦게 신청해서 8인 돔 말고 독채로 갔는데 한국인끼리 같은 방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스키 썰매도 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땐 바사토카보다 사리셀카가 조금 더 오로라 관측이 잘 됐던 것 같아요.